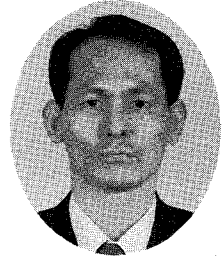


# ● 일본의 양계소식



## 1. 2분기 배합사료가격 사료톤당 5,000원 인상

농협은 3월 25일에 4~6월까지의 배합사료공급가격을 1~3월까지의 가격에 비교하여 전국 전축종 평균 톤당 500엔(5,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사료가격 인상은 3 분기 연속이다. 그러나, 사료기금에서의 보전으로 실제부담은 1,300엔(13,000원)이 된다. 축우용 배합사료는 BSE로 인하여 육우·낙농의 경영위기가 있어 통상기금에서 500엔(5,000원)과 이상(비상)기금에서 800엔(8,000원)을 보전하여 실제부담은 없다. 양계용 배합사료는 평균 인상폭보다 100~200엔(1,000~2,000원)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 2. 일본 산란양계산업연구회 발족

주식회사 PPQC 연구소는 후쿠시마(福島) 산란계회와 일본 폴트리클럽(JPC)의 협찬으로 이번에 일본산란양계산업연구회를 발족하고 제 1 회 연구회를 5월 16~17일 양일간 후쿠시마현(福島縣)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일본산란양계산업연구회는 전문분야를 포함하는 연구자와 생산현장과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부터 이러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하게 되었다.

5월 16일 오전부터 실시되는 가금인플루엔자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USDA 미국남부 닭질병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스웨인박사의 「연구면에서 본 가금인플루엔자의 현황, 미국의 보상시스템의 성립과 현황」이 발표되고, 오후에는 메리알주식회사 학술부분의 엔리케·몬티엘씨의 「현장에서 본 각국의 가금인플루엔자 실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5월 17일 오전의 발표는 ① 각종 산란양계근대화 시스템의 관리비교, ② 분석수치로 살펴본 시판사료의 비교, 오후순서는 ① 산란양계에 있어서 대장균중의 실패와 피해, ② SE 억제후의 살모넬라 동태, ③ 산란양계농장에서의 TRT 항체이동, ④ 야외에서 가금의 루이코치토존(ロイコチトゾーン)병 백신의 평가로 예정되어 있다.

## 3. 피비오(피-피오-)의 SE 억제능력 확인

3월 14일 동경에서 열린 제 4회 축산환경 세미나에서 동경대학과 히가시후지(東富士)농산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연구해오고 있는 유산발효혼합사료「피비오(피-피오-)」에 의한 살모넬라 억제능력 시험결과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관련업계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경대학의 이또오(伊藤)교수는 스트레스가 장내세균총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내 조절요인, 정상조건하에서 외래균을 배제하는 양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피비오가 장내세균총을 정비하여 SE 등 외래균을 저지하는가에 대하여 각종 실험자료를 보였다.

나카이(中井)교수는 피비오2를 사용한 발효개시, 급속한 온도상승, 암모니아의 초화(硝化)에 의해서도 동화기능(同化機能)이 높은 것 등으로부터 축분의 발효에도 매우 유용함을 설명하였다(이상 계명신문에서 발췌).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